
GKEDC 국제협력사업 프로그램 개발 관련 유관기관 사례조사 및 네트워크 확대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5. 8. 27. – 9. 4.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KDI 한국개발연구원

1

출장 배경 및 목적

- (개요)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은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이하 GKEDC)를 운영 중이며, 국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시, 국제협력사업, 교육을 추진 중
- (목적) GKEDC 전시 과업과 연계한 국제협력 사업 기획 및 유관기관 파트너십 확대
- (주요 내용) GKEDC 프로그램 개발 및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UNFCCC, 세계은행 Vienna Development Knowledge Center, JVI, 베를린자유대학교 관계자 면담을 추진하고, GKEDC 전시 리노베이션 기획을 위한 관련 사례조사를 실시

2

출장개요

- 출장기간: 2025년 8월 27일 ~ 9월 4일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장자: 독일 본 및 베를린, 오스트리아 비엔나
- 주요 활동사항
 - (기관소개) GKEDC 활동 소개를 통해 주요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기관 관계자들의 GKEDC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프로그램 개발 및 파트너십 확대) UNFCCC, UNFCCC, 세계은행 Vienna Development Knowledge Center, JVI, 베를린자유대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해 국제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 파트너십을 확대
 - (GKEDC 전시-국제협력 연계형 사업 기획) 역사, 경제, 산업 발전, 기후변화 등을 주제의 전시관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GKEDC 전시-국제협력 연계 사업 개발을 모색하고 GKEDC 리노베이션 기획에 기여
 - GKEDC 전시관 리노베이션은 2024년 5월 시작된 본 위탁사업의 과업 중 하나로, 전시 시설 및 콘텐츠의 교체를 통해 수요자지향형 전시관으로의 변화를 추구
 - 출장을 통해 리노베이션 기획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전시 콘텐츠 구성 및 공간 연출, 최신 연출 기법 및 매체 등을 벤치마킹
 - 베를린 Futurium, 독일기술박물관, 구동독박물관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 등 리노베이션이 지향하는 주제의 전달 방식 및 스토리텔링 기법, 공간 구성 등을 조사
 - 비엔나 기술박물관, 하우스 오브 뮤직, 요한 스트라우스 뮤지엄 등 역사적 사건의 서사 구조 및 전시 디자인, 관람객 중심의 체험 전시 기법 등을 조사

□ 출장자(총 4인)

#	성명	소속	직함	역할
1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	사업책임자
2	정원식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리노베이션TF	실장	사업관리자
3	박재현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운영총괄팀	팀장	사업관리자
4	김예림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2팀	팀장	사업관리자

3

출장일정

날짜	시간	일정	비고
8/27 (수)	11:05-17:40	□ 대한민국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동 (KE 945)	강동수, 박재현, 김예림
	18:00-19:40	□ 독일 프랑크푸르트-독일 본 이동	
	19:40	□ 호텔 이동 및 체크인 (Bonn Marriott Hotel)	
8/28 (목)	09:30-11:30	□ 역사/문화 관련 전시 사례조사 ○ Museum Ludwig, Köln	
	13:00-15:00	□ 역사/문화 관련 전시 사례조사 ○ Beethoven-Haus Bonn	
	15:00-18:00	□ 역사/문화 관련 전시 사례조사 ○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연방공화국 독일 현대사관)	
	19:00-20:00	□ UNFCCC 감축국 등 사업부서 간담회 ○ 문기영 UNFCCC 과장 ○ 임서영 UNFCCC 담당관 ○ 강우창 UNCCD 사막화방지 협약 담당관	
8/29 (금)	08:30-15:15	□ 대한민국 인천-프랑스 파리 이동 (AF267)	정원식
	10:00-12:00	□ UNFCCC 업무 협의 ○ UNFCCC Sophie de Coninck 이행국장 (Director, Means of Implementation Division, UNFCCC) ○ Dr. Grant A. Kirkman 기후재원 국가·민간부문팀장 (Lead, Climate Finance Country and Private Sector Engagement Unit, UNFCCC) ○ Babara UNFCCC 국가연락 담당자	강동수, 박재현, 김예림
	14:00-16:30	□ 독일 본-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동	
	19:45-20:55	□ 독일 프랑크푸르트-독일 베를린 이동 (LH198)	
	21:00-22:00	□ 호텔 이동 및 체크인 (Radisson Collection Hotel)	
	17:40-19:20	□ 프랑스 파리-독일 베를린 이동 (AF1534)	정원식

날짜	시간	일정	비고
	19:20-20:20	☐ 호텔 이동 및 체크인 (Radisson Collection Hotel)	
8/30 (토)	09:30-12:00	☐ 기술 관련 전시 사례조사 ○ Futurium - Haus der Zukünfte(미래의 집)	강동수, 박재현, 김예림
	14:00-17:00	☐ 기술 관련 전시 사례조사 ○ 독일 기술박물관	
8/31 (일)	10:00-11:00	☐ 역사 관련 전시 사례조사 ○ (구)동독박물관(DDR)	
	13:00-16:00	☐ 역사 관련 전시 사례조사 ○ 독일역사박물관(DHM)	
	18:35-19:50	☐ 독일 베를린-오스트리아 빈 이동 (OS234)	정원식
	20:30-21:30	☐ 호텔 이동 및 체크인 (Hilton Vienna Park)	정원식
9/1 (월)	10:00-13:00	☐ 기술 관련 전시 사례조사 ○ 비엔나 기술 박물관	오스트리아 빈 일정(정원식)
	15:00-18:00	☐ 전시 기법 관련 사례조사 ○ 하우스 오브 뮤직	
	11:00-13:00	☐ 베를린자유대학교 업무 협의 ○ 이은정 교수	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빈 일정(강동수, 박재현, 김예림)
	16:55-18:10	☐ 독일 베를린-오스트리아 빈 이동 (OS232)	
	18:10-19:00	☐ 호텔 이동 및 체크인 (Hilton Vienna Park)	
9/2 (화)	10:00-12:00	☐ 세계은행 Vienna Development Knowledge Center 업무 협의 ○ Emcet O. Tas 세계은행 비엔나개발지식센터 사업총괄책임자 ○ Filip Kochan 세계은행 비엔나개발지식센터 선임대외협력담당관	강동수, 김예림
	09:00-11:00	☐ 문화 관련 전시 사례조사 ○ 빈 음악의 집/JOHANN STRAUSS MUSEUM	정원식, 박재현
	13:00-15:00	☐ 역사 관련 전시 사례조사 ○ 비엔나 역사박물관	
	15:00-17:00	☐ 도시 관련 전시 사례조사 ○ 벨트뮤지엄	강동수, 정원식, 박재현, 김예림
9/3 (수)	10:00-11:00	☐ Joint Vienna Institute (JVI) 업프 협의 ○ Ben Kelmanson 원장 면담	강동수, 김예림
	09:30-11:00	☐ 도시 관련 역사 전시 사례조사 ○ 비엔나뮤지엄 카를스플라츠(Wien Museum)	정원식, 박재현
	11:00-13:00	☐ 도시 관련 역사 전시 사례조사 (벨베데르 박물관)	강동수, 정원식, 박재현, 김예림
	18:15-12:05(+1)	☐ 오스트리아 빈-대한민국 인천 이동 (KE938)	강동수, 정원식, 박재현, 김예림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확대

UNFCCC

☐ (일시) 2025년 8월 29일(금) 10:00-12:00

☐ (장소) 독일 UNFCCC 사무국 본부

☐ 참석자

- (내부) 강동수, 박재현, 김예림(이상 KDI)

- (외부) Sophie de Coninck 이행국장 (Director, Means of Implementation Division, UNFCCC),
Dr. Grant A. Kirkman 기후재원 국가·민간부문팀장 (Lead, Climate Finance Country and
Private Sector Engagement Unit, UNFCCC)

☐ 주요내용

○ UNFCCC 이행국(Implementation Division)의 주요 활동

- MDB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펠로우십·멘토십 프로그램, Needs-Based Fund(NBF)
사업, 역량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의 성격과 기술적 전문성에 따라 UNIDO, FAO, CTCN 등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

○ KDI와의 협력 플랫폼 제안

- KDI에 정기 워크숍 개최 또는 국별 기후변화 NDA 관계자를 초청하는 정례 협력 플랫폼
구축 가능 여부를 문의

- UNFCCC 사업은 연도별 추진 과제의 성격 및 해당 과제의 의장국·지역 등을 고려해
사업이 진행되므로, 정기 워크숍 개최지는 한국에 한정되지 않은바, UNFCCC 측은 KDI가
한국 외 다른 국가·지역에서도 정례 협력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

○ 역량강화 연수 협력

- 현재 UNFCCC 이행국은 CTCN과 다수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

- 이와 관련하여 UNFCCC는 KDI와 역량강화 연수를 공동 추진할 수 있는지 문의

- KDI는 협력 의사를 긍정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추후 세부 사항 협의 예정

☐ 관련 사진



UNFCCC 국장 등 관계자 면담

베를린자유대학교

☐ (일시) 2025년 9월 2일(월) 11:00-13:00

☐ (장소)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 참석자

- (내부) 강동수, 박재현, 김예림(이상 KDI)

- (외부) 이은정(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 주요내용

○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한국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 참석인원은 연간 약 23인이며 한국 경제발전, 구조개혁, 한류 산업화 등에 대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 숙박시설을 활용하며, 강의를 비롯한 주요 현장 방문을 포함

- 최근 프로그램의 경우 KDIS와 협업하여 이창근 교수의 한국 경제발전 강의와 이종연 교수의 특강을 제공

○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 개요

- 교육 언어: 학부(독어), 대학원(한국어·영어)

- 교과 내용: 현대사 중심(경제, 정치, 역사 등)으로 진행

- 학생 국적: 대부분 독일이며 약 10%는 동유럽·베트남으로 구성

- 졸업 후 진로: 학부 졸업생의 경우 기업과 행정직 분야로의 진출이 일반적이며, 대학원 졸업생은 EU, 특허청,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기관으로 진출

○ 독일 및 유럽 내 한국학 동향

- 독일 내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베를린 자유대학교, 보훔대학교*, 튀빙겐대학교** 등 총 6개교

* Ruhr Universität Bochum

**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 2015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 K-pop 확산을 계기로 유럽 내 한국학 학위과정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 이후에는 특히 독일 내에서 한류의 본격적인 확산이 관찰
- 유럽 내 한국학 관련 국가별 특징

프랑스: 유럽 내 한국학 수요가 가장 큰 국가

영국: 브렉시트 이후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

독일: 유럽 전역으로의 한국학 수요 확산을 견인하는 핵심 국가

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 프랑스 및 독일의 추세에 따라 점차 확산

○ KDI GKEDC 협업 방안

- 연수 프로그램 협력: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연수 프로그램의 서울 현장 방문을 KDI GKEDC와 연계하여 추진 가능
- 교육 자료 협력: KDI GKEDC 제작 교육 영상을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공식 웹사이트에 주요 참고 자료로 제공 가능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관계자 면담

세계은행 Vienna Development Knowledge Center

□ (일시) 2025년 9월 2일(화) 10:00-12:00

□ (장소) 오스트리아 세계은행 Vienna Development Knowledge Center

□ 참석자

- (내부) 강동수, 김예림(이상 KDI)

- (외부) Emcet O. Tas 세계은행 비엔나개발지식센터 사업총괄책임자, Filip Kochan 세계은행 비엔나개발지식센터 선임대외협력담당관

□ 주요내용

○ 세계은행 Vienna Development Knowledge Center (VDKC) 소개

- 2024년 세계은행그룹-IMF 연차총회에서 오스트리아와 세계은행은 「비엔나 개발 지식센터(Vienna Development Knowledge Center, VDKC)」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

○ 주요 기능

- VDKC는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 및 지역 전문성을 기반으로 워크숍, 연수, 심층 토론 등 다양한 지식활동을 지원

-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공공·민간 부문 관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필요 시 타 지역 회원국도 초청하여 개발 경험을 공유

- 중점 추진 분야는 경제 거버넌스, 기후 회복력 및 적응 등으로 구성

○ 활동 형식

- 심층 워크숍, 현장 방문 등 맞춤형 교육 사업 제공

- 콘텐츠 협력 측면에서 세계은행그룹 및 국제금융공사(IFC)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전문 지식을 제공

○ 파트너십 네트워크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유럽 내 주요 기관들과 협력하여 자원과 지식을 연계

○ KDI GKEDC 협업 방안

- 세계은행이 추진 중인 한국 방한 연수와 연계하여, KDI GKEDC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가능



세계은행 Vienna Development Knowledge Center 면담

Joint Vienna Institute

□ (일시) 2023년 8월 21일(월) 10:30-12:00

□ (장소) 오스트리아 Joint Vienna Institute

□ 참석자

- (내부) 강동수, 김예림(이상 KDI)

- (외부) Ben Kelmanson Joint Vienna Institute 원장

□ 주요내용

○ 설립 배경 및 재원 구조

- JVI는 1992년 IMF와 오스트리아 당국(중앙은행, 재무부)이 공동으로 설립

- 오스트리아 법에 따른 독립 국제기구의 지위를 가지며 IMF 사무소와는 별도로 운영

- 재원은 IMF,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오스트리아 재무부가 각각 3분의 1씩 분담

- OECD, 세계은행 EBRD, WTO, ECB 등은 강사 파견이나 과정 공동 운영 등 콘텐츠 차원의 협력을 제공

○ 설립 목적 및 발전

- JVI는 냉전 이후 중앙·동유럽 및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현재 중앙·동유럽, 중앙아시아, 이란, 튀르키예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며, 1992년 이후 약 25,000명이 참가

- 대표 사례로 코소보는 25년 만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제도 역량 강화의 모범사례로 공유

○ 교육 내용 및 대상

- 초기에는 통화와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한 4개월 집중 거시경제 과정을 운영
- 현재는 1~2주 단기·전문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대상은 주로 실무 공무원이나 일부 차관보급 이상의 고위 관료 참여
- 교육은 최대 30명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국가 간 네트워킹과 동문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교육 방식 및 선발 과정
 - JVI는 온라인 강의와 연습을 오프라인 연수와 결합하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도입
 - 교육은 국별 맞춤형보다는 거시경제 모델링 등 표준화된 과정을 제공하는 가운데, 실무자 워크숍과 지역별 고위급 워크숍을 함께 운영
 - 선발 과정은 JVI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각국 정부가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
 - IMF가 주로 전문가 파견이나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JVI는 교육과 네트워킹 중점
- JVI의 차별성
 - 약 7명의 경제학자가 핵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필요 시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함. IMF 및 주요 회원국 대상 과정은 무상으로 제공
- 한국과의 협업 사례
 - 한국은 JVI 정규 프로그램보다는 싱가포르 연수센터를 통해 주로 연계하며, JVI 정규 과정은 중앙·동유럽, 중앙아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이 주요 대상
- KDI GKEDC 시사점
 - KDI GKEDC와 EBRD 연수는 참여국의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반면, JVI 연수는 표준화된 강의를 제공
 - JVI의 블렌디드 연수는 KDI GKEDC의 모듈화 연수나 기획 중인 K-POP 온라인·오프라인 연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바, 향후 연수 설계 과정에서 JVI 방식을 벤치마킹 가능



JVI 원장 면담

전시 리노베이션 관련 사례조사

Museum Ludwig(켈른)

□ 위 치: 켈른 대성당(Cologne Cathedral, Kölner Dom) 및 중앙역(Hauptbahnhof) 인근

□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09:30 ~ 11:30

□ 전시 개요

○ 주제와 목적

- 유럽에서 중요한 근현대미술관 중 하나로, 팝 아트·표현주의·사진 예술·러시아 아방가르드 등의 다양한 장르 소장하고 있으며, 전시물들의 형태가 다양하여 벤치마킹의 가치가 있음

○ 20세기 이후 현대미술사 전개를 조망

- 팝 아트, 러시아 아방가르드, 독일 표현주의, 사진예술 등 현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체계적으로 보여줌
- 피카소, 워홀, 리히텐슈타인 등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전후 사회 변화와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

○ 미술과 사회·정치·대중문화의 교차

- 예컨대 팝 아트는 소비사회와 매스미디어의 확산을 반영하고,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혁명기의 사회적 이상과 예술적 실험을 제시
- 따라서 전시의 목적은 단순 미술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정신(Zeitgeist)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데 있음

□ 전시 기법

○ 큐레이션의 내러티브화

- 단순히 작품 나열이 아니라, 특정 시대·사조·작가를 하나의 이야기 구조 안에서 배치
- 예를 들어 피카소 전시는 “스타 작가”의 위상만이 아니라, 그의 작품 변천을 통해 20세기 전반기의 정치적 격동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

○ 비교·대조 전시

- 위홀의 팝아트와 리히텐슈타인의 만화풍 회화를 병치시켜 대중문화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방식
- 독일 표현주의와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나란히 보여주어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예술의 기능을 비교
- 미디어 활용
 - 회화·조각뿐 아니라 사진, 영상, 설치, 멀티미디어 자료까지 전시
 - 특히 사진 컬렉션(70,000점 이상)은 미술사적 가치뿐 아니라 시각문화사적 자료로서 교육적 기능 수행
- 공간적 흐름 강조
 - 전시 공간 자체가 개방적이고 관람자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체험하게 설계
 - “미술사 교과서 속 연대기”가 아닌,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는 구성

□ 시사점

- 미술관의 역할 확대: 단순히 작품 보관·전시 공간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 문화적 맥락을 학습하는 장으로 기능
- 큐레이션의 사회적 메시지: 작품 배치와 내러티브 구성 방식은 곧 사회·역사적 비판과 성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
- 다학제적 학습 모델: Museum Ludwig의 전시는 미술사뿐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대중문화 연구 등 다양한 학문과 연결 가능
- GKEDC 전시에 적용 가능 요소
 - 단순히 “소장품 전시”를 넘어 스토리텔링·맥락화·비교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사고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
 - 디지털·멀티미디어 자료의 적극적 활용은 특히 청년 세대와 외국인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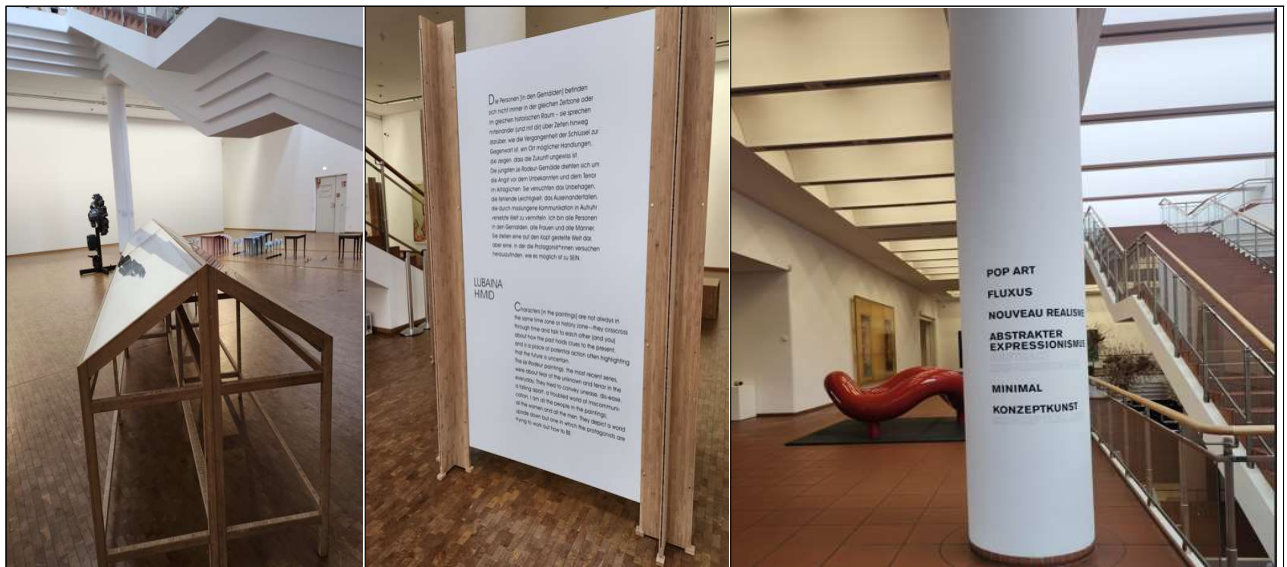
□ 관련 사진



전시관 외관



전시관 내부



비용 대비 간단한 전시 방안

Beethoven-Haus (베토벤 하우스, Bonn)

□ 위 치: Bonngasse 20, 53111 Bonn, Germany(베토벤이 1770년에 태어난 생가이며, 본 구도심의 역사적 거리 한복판에 위치)

□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13:00 ~ 15:00

□ 전시 개요

○ 주제와 목적

- 베토벤의 삶과 음악 세계 및 생애사(출생-청년기-빈에서의 음악 활동)와 작곡 활동과 악보, 원고, 편지 등 개인 기록, 피아노, 비올라 등 실제 악기와 생활 유품, 초상화·판화 등 당시 베토벤의 이미지와 사회적 위상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을 위주로 전시

- 베토벤의 개인사와 창작 과정을 통해 보편적 예술가 정신을 전달
- 단순 기념관이 아니라, 연구소 · 도서관 · 출판부 · 연주 공간까지 갖춘 종합적 음악문화 허브 역할
- 과거 유산 보존과 동시에 현대인에게 창의성과 음악의 사회적 가치를 체험

□ 전시 기법

- 유물 중심 전시: 악기, 자필 악보, 편지 등 실물 중심. → 예술가의 “손길”을 직접 느끼게 하는 정통 방식
- 내러티브 전개: 생가 내부 구조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되어, 방문자가 방을 이동하며 베토벤의 성장과 변화를 체험
- 멀티미디어 활용
 - 디지털 아카이브(악보 · 서신 8,500건 이상)
 - 음악 감상 공간(작품별 청취 코너, 영상 자료)
 - 현대적 공연장(Abs Chamber Music Hall)에서 실연(라이브 콘서트) 제공
- 몰입형 경험: 단순 유물 관람을 넘어 음악 감상, 학술 연구, 출판물, 기념품까지 “베토벤 문화 생태계”를 구축

□ 시사점

- 문화유산 + 연구/교육 기능 결합
 - 단순한 기념관을 넘어 연구소 · 출판 · 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된 “지식 · 문화 복합 공간” 모델을 참고 가능
 - GKEDC의 K-POP 전시관 등에 확대 적용 가능
-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 베토벤 하우스처럼 원고 ·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 · 교육 · 관광 기능을 동시에 강화
 - K-POP 전시 관련 아카이브에도 적용 가능
- 스토리텔링 중심 전시 설계
 - 단순 소장품 나열이 아닌, 인물의 생애 · 작품과 시대상을 연결한 내러티브 방식

- 한국 K-POP 아티스트들의 생활을 공간 이동과 함께 경험하도록 구성 가능
- 공연·참여형 프로그램 연계
- 전시관이 단순 관람 공간을 넘어, 실연(연주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
- GKEDC에서는 전통 음악관·K-POP 아카이브·현대미술관 등에서 “체험+공연형 기획”으로 확장 가능
- 지역 정체성과 관광 시너지
- 베토벤 하우스가 본(Bonn)의 정체성을 상징하듯, 한국도 지역 대표 인물·예술가 중심 문화공간을 도시 브랜드화 가능

□ 관련 사진



현대사 박물관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줄여서 Haus der Geschichte, “연방공화국 독일 현대사관”)

□ 위 치: Willy-Brandt-Allee 14, 53113 Bonn, Germany(본 박물관 거리 구역)

□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15:00 ~ 18:00

□ 전시 개요

- 전시 주제: 독일 현대사(1945년 이후) 라는 제목의 전시가 있었으며, 전후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정치, 사회, 문화, 일상사 등을 폭넓게 다룸
- 다만 이 상설 전시는 2024년 9월 15일부로 닫히고, 전면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 2025년 12월에 새 전시가 다시 개관될 예정
- 전시 중단 기간에도 일부 특별 전시, 사진전, 수장고(컬렉션 창고) 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
- 소장품: 박물관은 정치·경제·사회·문화사 관련 유물, 문서, 사진, 영상 매체, 일상용품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며, 정치 만화/풍자화 카툰 갤러리도 포함
- 전시 규모: 약 4,000 m² 전시 공간에서 약 7,000여 점 이상의 유물을 전시해왔다고 소개
- 현재 전시명 After Hitler. The German confrontation with National Socialism (“Nach Hitler. Die deutsche Auseinandersetzung mit dem Nationalsozialismus”) 특별전이 전시 중
- 전시 목적
- 나치 시대 이후 독일 사회가 어떻게 나치 과거를 마주하고 기억해 왔는지 세대별,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탐구
- 전시의 중심 오브제로는 조각가 Hedwig Maria Ley가 만든 아돌프 히틀러 흉상이 포함되며, 이 흉상이 전쟁 후 정원에 묻힌 사건을 상징적으로 재조명
- 독일 사회 내부의 침묵과 기억의 정치, 이후 세대의 비판적 접근 등을 테마로 전시
- 나치 치세 이후 독일 사회가 나치 과거(Nationalsozialismus)를 어떻게 마주 했는지, 세대별 기억 방식과 대처·비판의 변화 과정을 조명

○ 중심 전시물 및 내용

- 히틀러 흉상(Adolf Hitler의 흉상) — 조각가 Hedwig Maria Ley가 만든 흉상을 전후 전쟁기 정원에 묻었다는 기록과 함께 전시
- 1965년 발송된 히틀러 알펜도미실(베르크호프) 우편카드 등 소소하면서도 상징적인 일상 자료
- 유대인 가정의 가방, 편지, 일상 용품 등 개인의 유물과 문서
- 전시는 나치 시대 직후를 경험한 세대부터 이후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기억과 태도 변화를 보여주며, 개인 경험과 집단 기억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냄, 특히 “침묵(silence) → 비판(censure) → 재해석” 같은 기억의 궤적을 주요 축으로 전시
- 약 170개의 기증처(leihgeber)에서 대여한 전시품과 HDG 자체 소장품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미디어 설치(media installations)도 적극 활용

□ 전시 기법 및 구성 방식

○ 세대별 접근 (Generational Framing)

- 전시는 한 세대(전쟁 시절 경험자, 이후 세대 등)를 하나의 단위로 구획하며, 세대 간 기억 방식과 충돌을 비교하도록 구성
- 이전 세대의 목소리(증언, 문서)와 이후 세대의 평가 및 비판을 병치하여 시간적 간극을 인식

○ 미디어 및 멀티미디어 설치 (Media / Media Installations)

- 영상, 사운드 자료, 음향 기록 등을 매체로 활용하여 관람자가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게 전시
- 미디어 설치를 통해 특정 기억 장면을 재구성하거나 전체 공간 분위기를 강화하는 연출 활용

○ 상징적 전시물 활용

- 위에서 언급한 히틀러 흉상처럼, 단 하나의 상징적 유물이 관람자의 감정적 연결 고리가 되도록 배치
- 일상용품이나 우편카드 등 매스미디어적이며 사소한 자료들도 전시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

○ 공간적 흐름 및 분위기 연출

- 전시 동선을 따라 과거 → 전환기 → 현재로 이어지도록 구성하여 관람자가 시간 흐름을 체감하도록 설계
- 조명, 벽 색상, 음향 분위기 변화 등을 활용하여 시대별 감정적 분위기를 조성. (예: 어두운 조명, 무거운 분위기 → 밝아지는 연출 등) (간접적으로 언급)

○ 가이드 투어 및 안내 프로그램

- 전시는 정해진 시간대(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마다 공공 안내(가이드 투어)를 제공

○ 수장고 투어(depot tours), 대체 프로그램 제공

- 상설전시관이 리노베이션 중인 상태에서, 전시 공간 외 수장고 내부 공개 투어를 제공하며, 사진전시 등 대체 전시로 관람 기회 유지

□ 시사점 및 적용 방안

○ 기억의 세대 구조화

- 특정 역사 주제 전시에 대해 세대별 기억 방식 차이를 구조화해 보여주는 방식이 유용, 예를 들어 독재 시절 경험자 세대와 이후 세대의 시각 변화 비교 전시

○ 상징적 유물 + 일상 자료 병치

- 핵심 상징 유물(예: 특정 인물의 유품)과 함께 일상 용품, 미디어 자료, 사진, 우편물 등도 함께 전시해 관람자의 감정적 연결성을 높이는 배치

○ 미디어 설치와 인터랙티브 콘텐츠 강화

- 단순 정적 전시에서 벗어나 음향·영상을 통한 몰입 경험 제공. 관람자가 터치 스크린, 영상 인터페이스, 오디오 가이드 등을 통해 자신의 속도로 탐색할 수 있게 구성

○ 동선 기반 시간 체험 설계

- 공간 이동이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시간 여행” 처럼 느껴지도록 동선과 전시장 분할 설계. 시대별 분위기를 조명, 음향, 소품 변화로 체감시키기

○ 투어 및 해설 프로그램 병행

-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가이드 투어 제공, 그룹 투어 예약 시스템 운영. 관람객이 중심 해설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지원

○ 수장고 공개 및 대체 콘텐츠 운영

- 상설전시 개편이나 폐쇄 시에도, 수장고 투어, 사진전, 팝업 전시 등을 통해 방문 동선을 유지하고 계속 관람객 유입 가능

○ 비판적 기억 및 현재 연계성 강조

- 단순 과거 제시를 넘어, 현재 사회 이슈 (예: 극우주의, 혐오 범죄 등)와 연결 지어 전시 메시지 강화. HDG 전시도 반유대주의 범죄 증가 등을 전시 맥락으로 연결

○ 무료 입장 및 접근성 강조

- HDG는 무료 입장으로 전시 접근성을 보장하며, 개편 중에도 부분 공간 개방 등으로 관람 기회를 유지

□ 관련 사진



3세대 존

마지막 전시 메시지



색상으로 시대를 표현

다양한 표현기법 활용

Futurium

□ 위 치: Alexanderufer 2, 10117 베를린

□ 일 시: 2025년 8월 30일(토), 09:30~12:00

□ 전시 개요

- Futurium은 “미래의 집(House of Futures)” 이라는 슬로건 아래, 과학, 기술, 사회, 환경 등이 만들어갈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탐구하는 박물관으로 Nature, Human, Technology 등을 중심으로 확정된 미래가 아닌 ‘가능한 미래’를 탐구 방식으로 전시
- 로비(1층)에서 2층의 상설전시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거대한 회오리 모양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지구 환경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형상화

□ 시사점

- 기후변화, 기술 혁신과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체험 중심으로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비선형 동선으로 전시관을 구조화하여 관람객이 주제를 선택해 이동·관람할 수 있는 관람자주도적 전시관으로 조성
- 미래에 대한 확정된 답을 제시하기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하나가 아닌 ‘다양한 미래’를 상상하라는 메시지 전달
- 대형 미디어 월(Wall)과 인터랙티브 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관람객의 참여와 몰입을 극대화
- 텍스트 중심 설명을 최소화하고, 시각·청각 중심의 체험형 장치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
- 화이트와 블랙의 기본적인 톤앤매너(Tone & Manner)를 유지하되, Zone별 Point Color(형광색)를 활용하여 콘텐츠의 전환을 암시

□ 관련 사진



전시관 1~2층 연결 계단



전시관 1-2층 상징전시물



일반적인 원인 “인간”



자연을 다시 생각하다 “자연”



새로운 지평을 향해 “기술”



독일기술박물관

□ 위 치: Trebbiner Str. 9, 10963 베를린

□ 일 시: 2025년 8월 30일(토), 14:00~17:00

□ 전시 개요

- 1983년 개관한 독일기술박물관은 약 26,500m² 이상의 광활한 전시 공간과 10만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한 대형 전시관으로, 기술 발전의 역사를 단순 나열이 아닌 독일 사회·역사·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전시한 점이 특징
- 외벽에 설치된 DC-3 항공기는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하고 ‘기술 스케일’과 박물관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전시관은 큰 틀에서 교통(철도·항공·해양)과 산업, 일상기술(인쇄·사진·통신)로 구분되나, 콘텐츠를 테마별로 배치함으로써 관람객이 관심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동선을 계획할 수 있도록 조성
- 과거 철도 창고를 리모델링한 건물을 전시관에 포함하여 현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계 박물관으로서의 특색을 표현

□ 시사점

- 증기기관차, 항공기, 선박 등 실제 크기의 유물을 전시관에 풍경처럼 배치하고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실제 공간 속에서 기술과 역사의 크기감을 체험하도록 설치
- 19세기 철도 창고 건물을 보존·활용하여, 공간 자체가 전시 주제인 산업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구현
- 방대한 소장품을 교통 기술, 산업·생산 기술, 생활문화·사진·영상 구역으로 명확히 구획하고, 동선을 자유롭게 설계해 관람객이 관심 있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 관련 사진



박물관 상징조형물 “DC-3 항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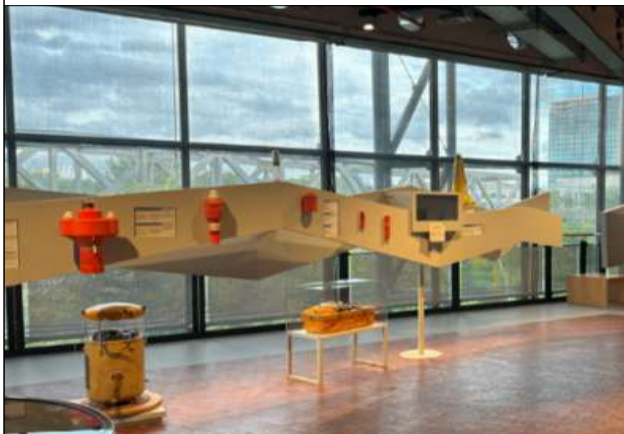
교통 기술 존 “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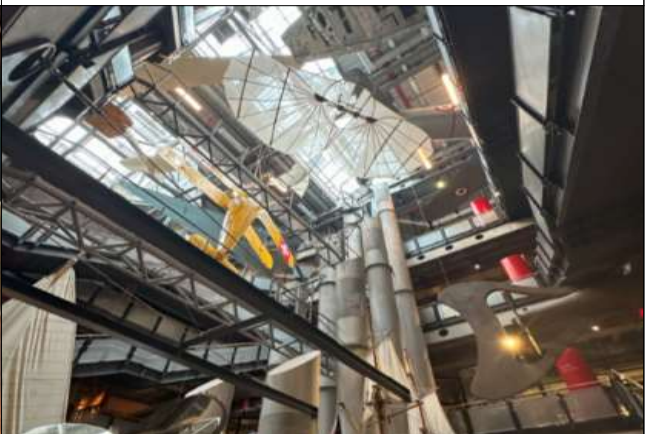
교통 기술 존 “선박”



교통 기술 존 “항공”



교통 기술 존 “해양”



전시관 중앙 계단

구동독박물관(DDR)

□ 위 치: TVera Britain Ufer, Karl-Liebkecht-Str. 1, 10178 베를린

□ 일 시: 2025년 8월 31일(일), 10:00~12:00

□ 전시 개요

- 2006년 개관한 구동독박물관은 체험형 역사박물관을 지향하는 곳으로, 옛 동독인들의 삶과 동독의 사회시스템을 일상, 통제와 감시, 이념과 선전, 교통과 문화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전시
- 옛 동독인들이 사용한 가구와 생필품 등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재현한 주거공간 전시는 체험을 통해 옛 동독인들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대 간 소통과 상호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전시 콘텐츠
-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박물관으로, 낮은 층고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활용하여 공간을 분리하는 한편, 엘리베이터 시승 등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도 높은 체험 밀도를 제공

□ 시사점

- 역사계 박물관의 정적이고 진중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관람객이 유물을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체험 중심으로 꾸밈으로써 전시와 관람객이 상호작용하는 전시를 지향
- 역사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일상을 중심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시대를 이해함으로써 관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제고
- 감시실 등 실제 공간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관람객에게 공포·긴장·불편함 등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관람의 몰입도를 제고
- 옛 동독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 및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동독의 정치, 사회 등과 관련한 용어를 전시 벽면에 해설집 형태로 제공

□ 관련 사진



문화 Zone



정치 Zone



일상 Zone

기술박물관 (Vienna Museum of Science & Technology)

□ 위 치: Mariahilfer Str. 212, 1140 비엔나

□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10:00~13:00

□ 전시 개요

- 1918년 설립된 22,000m² 규모의 오스트리아 최대 기술·산업 전시관으로, 오스트리아 및 유럽의 기술사 전반을 전시로 구현

전시관	주요 특징
In Motion	- 물리적·기계적 움직임을 시뮬레이터 등의 체험형 매체로 구현 - 전시관 출입구에 미끄럼틀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제고
Climate.Knowledge.Action!	-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시로 표현 - 사회와 개인 차원의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시를 모듈화하여 향후 지속적인 전시 개편이 가능하도록 설계
Energy	- 유물, 디오라마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최소화한 연출방식 사용 - 스크린 앞에 유물을 배치하여 입체적인 영상 관람 경험을 제공
More than REcycling	- 재활용과 순환경제를 주제로 한 전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 구현 - 움직이는 대형 Sign 전광판은 시사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
Material Worlds	- 목재, 콘크리트, 플라스틱, 알루미늄, 희토류 등의 생산, 활용, 사회적·환경적 영향 등을 전시로 표현
Everyday Life	- 기술 관련 직업에 초점을 두고 일상 속 기술과 환경을 전시로 표현
Mobility	- 과거의 이동수단에서 미래의 친환경 모빌리티까지 이동수단의 역사를 시계열 방식의 스토리라인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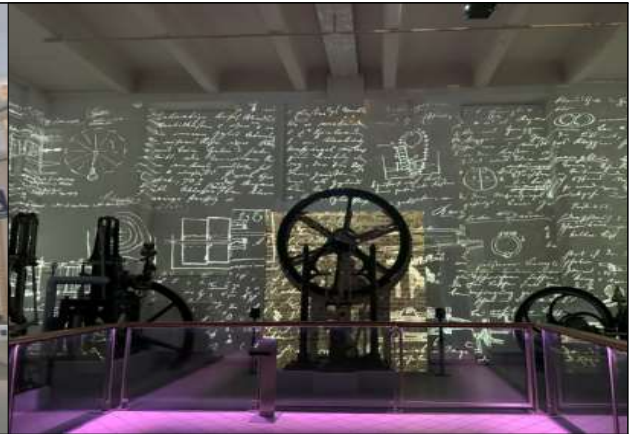
□ 시사점

- Material Worlds Zone은 ‘섬’을 연출 테마로 채택하여 일상 소재의 사회적·기술적·환경적 의미를 표현
- More than Recycling Zone은 재활용 자재 사용, 전시매체의 모듈화 적용 등을 통해 전시 공간과 전시 주제를 연결
- 전시 주제를 개인, 사회, 정치, 국제협력 등 다층적 시각에서 다루어 관람객이 관찰자가 아닌 선택을 내리는 주체가 되도록 기획

□ 관련 사진



Climate.Knowledge.Action!



Energy



More than REcycling



Material Worlds



Everyday Life



Mobility

하우스 오브 뮤직

- 위 치: Seilerstätte 30, 1010 비엔나
-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15:00~18:00
- 전시 개요
 - 음악을 청각적·과학적·예술적 관점에서 전시한 세계 최초의 박물관으로, 각각의 전시 공간이 차별화된 방식으로 음악을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기획

전시관	주요 특징
비엔나 필하모닉	-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성과 전시 - 악보, 연주 자료, 음반, 지휘자와 연주자들의 유품 전시 - 전통과 권위가 결합된 음악사 기록 전시
사운드 탐험	- 청각의 원리, 소리의 과학, 동물·인간·도시 등의 다양한 소리 탐구 - 인터랙티브 전시매체를 통해 소리의 파동과 음향 현상 등 체험
위대한 작곡가	-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슈트라우스 등 비엔나와 관련된 음악의 거장들의 삶과 작품 전시 - 악보 원본, 초상화, 영상 자료 등의 전통적 형태의 전시 자료를 중심으로 구현
가상 지휘자	- 모차르트 작곡 기법에 기반한 다양한 음률을 관람객이 선택하여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 - 스스로 만든 음악을 비엔나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연주하는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 제공

- 시사점
 - 아카이브, 인물사, 과학적 탐구, 창작 등의 순으로 전시를 구성하여 관람객이 체계적으로 음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
 - 예술·역사·과학·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음악을 해석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음악을 보고, 이해하고, 체험하는 경험 제공
 - 박물관 건물이 비엔나 필하모닉이 탄생한 공간이라는 점을 전시관 곳곳에 표현하여 공간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

□ 관련 사진



비엔나 필하모닉 아카이브



다양한 악기 전시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 · 관람 전시



비엔나 필하모닉 지휘 체험 공간



위대한 작곡가 전시

요한 슈트라우스 뮤지엄

□ 위 치: SFriedrichstraße 7, 1010 비엔나

□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09:00~11:00

□ 전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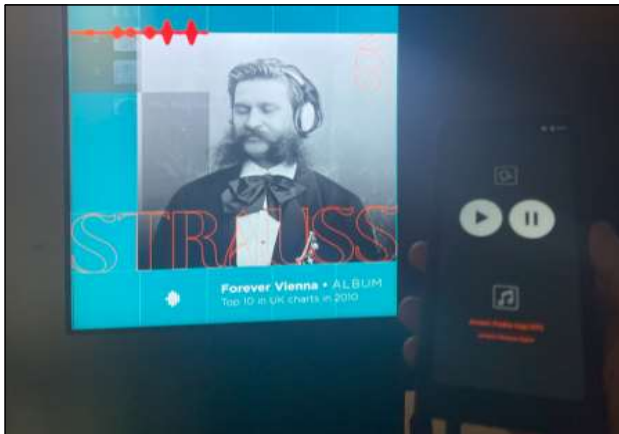
- 왈츠의 왕으로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삶과 작품을 조명한 박물관으로, 왈츠의 형식을 빌려 총 7막(전시관)으로 구성된 개별 관람 형식의 몰입형·체험형 전시 공간

전시관	주요 특징
Act 1	- '악마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유명한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비엔나 사교계에 혁명을 일으킨 1820년대의 상황 전시
Act 2	- 1848년 오스트리아 혁명 당시, 비엔나의 정치적 격변 상황과 세대 간 충돌 등의 사회적 분위기 전시
Act 3	-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음악적 성공을 통해 당시 유럽 사회에 일으킨 반향과 러시아로의 진출 전시
Act 4	-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의 성공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상황을 전시 - 자신만의 왈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음악 작곡 체험 공간 제공
Act 5	- 오페레타 "Die Fledermaus", "The Gypsy Baron" 등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대표 음악과 관련된 전시 공간
Act 6	-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사망으로 인한 한 시대의 종말과 그의 음악이 이후 오스트리아 사회에 미친 영향 조명
Final	-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는 순간들을 보여주는 5.5m 높이의 몰입형 영상관

□ 시사점

- 7개의 전시관을 시간 순으로 조성하여 관람객이 요한 슈트라우스의 삶과 음악적 성취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 관람객이 전시 내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람객이 구사 가능한 언어(한국어 포함) 해설이 담긴 헤드셋 제공
- 악보, 가족 등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삶과 성취를 XR·AI 등과 같은 현대의 기술로 보여줌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연결성 강화

□ 관련 사진



8개 국어로 제공되는 전시해설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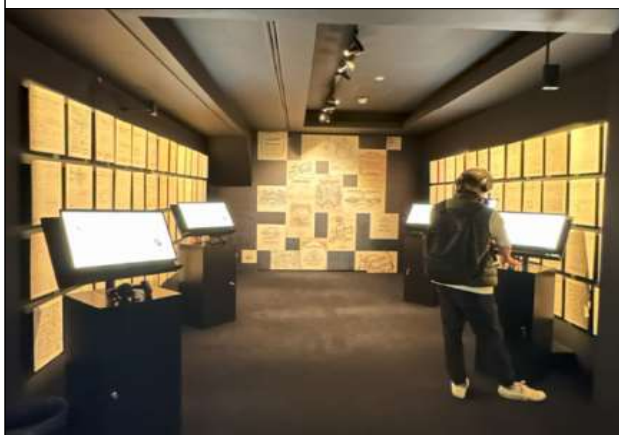
그래픽과 조명을 이용한 전시연출



사진과 영상이 혼합된 전시연출



거울, 영상, 조형물을 조합한 전시연출



왈츠 작곡 체험 공간



몰입형 영상관

역사박물관 (Haus der Geschichte Österreich)

□ 위 치: Neue Burg, Heldenplatz, 1010 비엔나

□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13:00~15:00

□ 전시 개요

- 1918년 민주공화국 선포가 이루어진 호프부르크 왕궁 내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민주공화국 선포 이후 100여 년간에 걸친 오스트리아 정치·사회·문화·경제 역사 전시
- 역사적인 건축물 내부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연출 방식으로 표현된 박물관을 조성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상징성 부여
- 전시는 민주공화국 선포, 1차 세계대전의 영향, 독재정권과 나치 테러, 현대의 나치주의, 오스트리아의 현재, 1945년 이후의 경제 변화, 국경의 정치적·사회적 영향, 평등권 투쟁 등으로 구성
- 20세기 오스트리아의 역사를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통해 조명하여 과거에 대한 단순한 해설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지향점을 소개

□ 시사점

- 역사의 흐름이 정치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등 오스트리아 전반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연출 방식 채택
- 때로는 어둡고 위압적인 역사의 순간들조차 밝은 색채와 화려한 디자인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람객이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제국의 웅장함을 지닌 역사적 공간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조화시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출

□ 관련 사진



박물관 로비 및 입구



비계구조물을 활용한 전시 연출



비엔나의 과거 풍경을 형상화한 전시벽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전시벽체



철골 구조물을 활용한 전시 연출



포스트잇을 활용한 전시 연출

벨트뮤지엄

□ 위 치: Neue Burg, Heldenplatz, 1010 비엔나

□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15:00~18:00

□ 전시 개요

- 오스트리아 최대 규모의 인류학·민속학 박물관으로, 비유럽 문화권의 다양한 유물을 전시
- 1830년대 제작된 브라질 무룬두루(Munduruku)족의 깃털 벨트(waist belt)를 포함하여 4만 점에 달하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의 민속품을 보유 및 전시
- 각 지역을 대표하는 14개의 룸(room)으로 구성된 전시관은 각각의 룸이 서로 연결되어 전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과 제국주의 시대의 오스트리아의 영향 등을 소개

□ 시사점

- 하나의 유물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오스트리아와 남미)을 설명하는 연출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교차 해석하는 전시 연출 방식 채택
- 제국주의 시대에 이루어진 문화재 수탈을 반성하고 식민 대상 지역 및 국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연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시사점을 제공
- 옛 왕궁 내부에 조성된 박물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왕궁 내부의 방(room)과 방을 연결하는 동선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왕궁의 기존 시설을 보존하기 위한 전시 벽체 및 매체로 연출
- 4만 여점에 달하는 민속품을 보유한 박물관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전시물의 다양한 크기에 맞는 유물장을 설계·제작·진열한 점이 특징

□ 관련 사진



기존 왕궁 시설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전시 벽체



다양한 크기 및 형태의 유물장



차별화된 형태와 색감의 Data 연출

그래픽 필름을 활용한 전시 연출

비엔나뮤지엄 카를스플라츠

□ 위 치: Karlsplatz 8, 1040 비엔나

□ 일 시: 2025년 9월 3일(수), 09:30~15:00

□ 전시 개요

- 1959년 오스왈드 하얼틀(Oswald Haerdtl)이 설계한 건물에 조성된 비엔나 도시박물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축된 오스트리아 최초의 박물관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여에 걸쳐 전시관 리노베이션을 진행한 박물관으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최신의 연출 기법을 활용하여 비엔나의 도시 역사를 조명
- 전시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 합스부르크 제국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에 이르는 비엔나의 유구한 역사를 약 7,000여 점에 달하는 유물을 활용하여 전시(총 소장품은 1백만 점 이상 보유)
- 도시 계획과 건축, 생활사와 예술작품, 사회운동 등 비엔나 역사와 비엔나 시민들의 삶을 예술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소개

□ 시사점

- 하나의 통일된 톤앤매너(Tone & Manner)를 적용하지 않고 전시 Zone별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관람의 흥미와 동선의 변화를 관람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연출
- 일부 전시 공간의 경우, 자연광을 차단하는 일반적인 박물관 설계에서 벗어나 자연광이 전시관 내부로 들어오도록 설계함으로써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
- 미술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물장과 전시 벽체를 채택하여 기존의 박물관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

□ 관련 사진



원형 유물장을 활용한 전시동선 설계



철골과 우드를 활용한 전시 벽체



자연광이 들어오는 오픈형 전시공간



기둥을 활용한 미술관 타입 연출



층간 타공 부분을 활용한 모형 전시



착시효과를 활용한 그래픽 연출